민주, 한승수 총리 인준 '가결' 가닥

장관 내정자 3명 잇따라 사퇴 '선결 조건' 해결

부결땐 '발목잡기' 부담…자유투표 처리 가능성

통합민주당이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총리 인준표결을 29일로 연기하면서 문제 장관들의 사퇴를 인준의 '선결조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부적격자로 지목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잇따라 사퇴하자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남아있지만 인준안은 가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만나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29일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임종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총리 임명동의안은 29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지적한 것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한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3명의 장관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인준투표 거부 사유가 일정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지지대 삼아 초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 인준을 거부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할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방식과 관련,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자유투표 또는 권고적 당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의총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반대 당론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부적격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자유투표 등의 방식으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인준거부를 주장했던 강경파 의원들도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와 여당도 장관 후보 3명 사퇴로 타격을 입은 만큼 총리 인준안은 이제 자유투표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며 "일단 1라운드는 끝난 셈이고 나머지 부적격 장관 문제는 계속 지적해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사이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강경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선기간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야당 인사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대여 강경투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성남시 학생중앙군사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2008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후 식장을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복 입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李 대통령 ROTC 임관식 참석 "軍 명예 높여 나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군(軍)을 감사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학군사관학교(ROTC) 제46기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을 겸한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 군을 강하게 하고 군의 명예를 드높여 나가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높게 기리고 명예롭게 하는 일을 꼭 하겠다"면서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여기서 시작한다. 선진 일류국가의 바탕은 여기에서 만들어 진다"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의 요체이기도 하다"며 '군이 존중받는 사회'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창조적 실용주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업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받는 것,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나 개인의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실용의 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실용주의에 앞선 실천자"라고 생도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헬기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애도하며 "나는 그 유족들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고귀한 헌신과 아픔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만큼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 아픔을 참고 분단의 어려움을 꿋꿋이 지켜낸 군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총선서 100석 이상 성과 올려라"

DJ, 민주당에 대선 참패 회복 주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일 "18대 총선은 양당제도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며 "(통합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은 힘들겠지만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보태 100석 이상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사저에서 새해 인사차 방문한 지역구 의원인 통합민주당 정청래(마포을) 의원을 만나 "정권교체를 민주주의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너무 많이 진 만큼 이번(총선)에서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따른 통합민주당 창당과 관련, "지금 국민은 양당제를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통합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 통합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 서민경제 등 1956년 민주당 창당정신과 전통을 이어달라"며 "보수정권은 북진통일, 냉전주의를 주장하며 민주세력을 좌파로 몰아 탄압했지만 민주세력은 일관되게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부 대운하 반드시 추진"

정종환 건교장관 내정자

정종환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부 대운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경부 대운하는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서 환경·경제·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문화 훼손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용화씨 등 광주·전남 8명 단수후보 압축

한나라 1차 공천심사 마무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1차 공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8명이 단수 후보로 압축됐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28일 현재 광주·전남에서 광주 광산갑의 조재현(47) 광주시당 부위원장과 무안·신안의 예비역 장성 출신인 고기원(59) 대전대 교수 등 2명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광주 서갑에 정용화(43) 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 서을에 정순길(62) 전 광주 서구의회 의장, 북을에 김천국(51) 당협위원장, 장흥·영암에 채경근(52) 중앙당 농림축산분과 중앙위원, 해남·진도에 설철호(5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담양·곡성·장성에 비공개 1인 등이 단수 후보자로 각각 압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